

IV-1

지역맞춤형 명문학교 육성

공 약 목 표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통합 거점 중고등학교 육성			
추진부서	행정과 교육혁신 / 평생학습	담당자(행정전화)	한성수(7162) 공미진(7163)	
완료시기	■ 임기내(2026) □ 임기후	사업구분	□ 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주체	□국 □도 ■군 ■기타	예산구분	■ 예산 □ 비예산	
이행단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추진율 40%

현황

- 장학금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진로진학 지원사업, 영어캠프 등 교육지원
-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거점학교 육성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 하동교육 발전방안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 장학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진로·진학 지원사업, 사이버 영어스쿨, 영어캠프 등 제공
 - 기숙형 고교 지원
 - 기숙사 운영비 및 방과후 교육 운영비 지원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통합 거점 명문학교 육성)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속적인 업무협약
 - 학교별 간담회 추진
 - 동창회, 지역민, 교육관계자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예산확보 실적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8,924	0	0	7,054	1,870	5,334	0	0	4,089	1,245
2022	1,744			1,394	350	1,744			1,394	350
2023	1,795			1,415	380	1,795			1,415	380
2024	1,795			1,415	380	1,795			1,280	515
2025	1,795			1,415	380	0				
2026	1,795			1,415	380	0				

연차별 추진계획 및 목표

구분	주요 추진계획 및 목표	목표 달성 여부
2022	○ 장학사업(장학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방과후 교육 등 다양한 인재 육성사업 추진 ⇒ 매년 계속 사업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협의	달성
2023	○ 영어캠프 등 인재육성사업 4개 이상 추진 ○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달성
2024	○ 인재육성사업 5개 이상 추진 ○ 거점명문고등학교 육성 세부지원 방안 수립	
2025	○ 거점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특색있는 인재육성방안 및 장학사업 발굴	
2026	○ 하동읍 중심 거점 고등학교 조성	

추진실적

- 2022. 7. ~ 8. : 진로진학 지원사업 실시(수시·학생부 컨설팅 145명)
- 2022. 8. : 초·중학생 영어캠프 실시(80명)
- 2022. 9. 30. : 하동 교육발전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
- 2022. 4. 24. : 거점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실시
- 2023. 5. 25.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제 1차 민관협의체 운영
- 2023. 6. 16. : 지역맞춤형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학부모 대상 공청회
- 2023. 6. 29. : 제2차 민관협의체 협의체 운영
- 2023. 7. 30. ~ 8. 11.: 초등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 실시(70명)
- 2023. 7. 31. : 지역맞춤형 하동 명문고 육성방안 연구 용역 완료
- 2023. 8. 25. : 학교통합 논의를 위한 도교육감·군수님 간담회
- 2023. 계속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방안협의

사진 및 자료

동방일보

2023년 05월 30일 (화)
지역 09면

하동군,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하동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0일부터 8월 11일 까지 12박 13일간 온내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에 위탁·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하동군 맞춤형 교육자문 일환으로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급포별 마인드 심장을 목표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캠프는 원어민 강사의 집중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을 유도하며, 실용영어 체험교육으로 실생활 영어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선발 기준에 따라 영정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서민자녀 등의 우대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가희망자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라동어가카데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 영어캠프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영어활용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팀기자 ykim@donganpibo.co.kr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023년 05월 31일 (수)
차지의정 06면

경남신문

'하동군·여고 통합' 민관협의체 월 1회 회의 연다

하동교육지원청서 첫 회의 열려
"통합 필요"- "평문사학 유지" 맞서
도교육청 "협력해 상생 방안 발굴"



속보= 하동고와 여고의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경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28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28일 4면)

전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지속 논의·상생방안 발굴 등을 당부했다. 2차 회의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제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면서 협의 도출까지 월 1회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민관협의체 회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교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속과 영문 사학의 존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속의 의견이 맞섰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의 중심에 위치한 두 학교의 통합으로 하동을 대표하는 기립 문문고 육성이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기성세대의 의견을 버리고 과감한 변화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며 고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하동고 유일한 사학을 없애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오히려 하동고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장기적으로 두 학교의 분례없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만 사립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선부르게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민관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사립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관협의체에는 초·중·고 사립학교(하동여고) 법인 이사장, 동경대 하동고 교장, 아양원 하동여고 교장, 정광수 하동고 총장총학생, 한속 하동여고 총학생회장, 권영의 하동고 학부모회장, 홍준표 하동고 학교운영위원장, 박성연 하동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최승배 하동교육지원청 교육협력 담당, 강은숙 하동군 행정과장, 강구연 도의원, 김희순 군의원(부의원), 전한현 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조흥미 도교육청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영분 기자 haw@hannews.co.kr

향 후 계 획

- 장학금, 인재 육성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 지원
- 고등학생 겨울방학 해외문화체험 실시(2024. 1. 19. ~ 1. 28.)
- 경남교육청 주관 적정규모학교 추진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폐합 방안 수립
- 하동읍지역 거점학교 육성

군 민 소 통 현 황

설명회,공청회	만족도조사	전문가자문	언론/방송보도	SNS홍보	기타 (오프라인)
4회	-	-	10회	-	2회 (전단배부)